

일본, 6차 산업 판매액 증가

일본 농림수산성이 6월초에 발표한 6차 산업화 종합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의 6차 산업관련 연간 총 판매액은 1조 8,253억엔으로 전년대비 4.6%, 총 종사자수는 46만 8200명으로 전년대비 3.8%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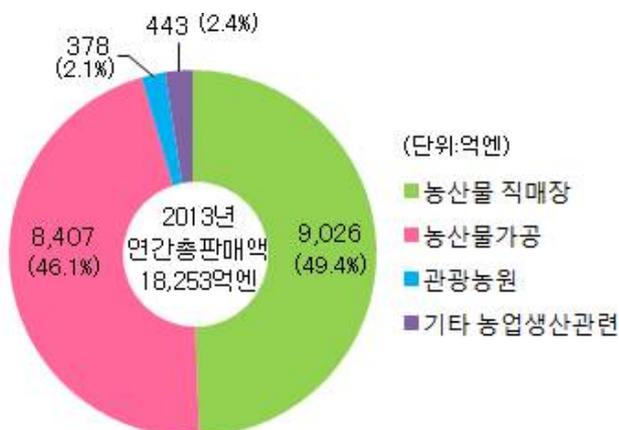
조사를 시작한 '10년도와 비교하면 판매액은 10% 증가하여 과거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일본정부가 내세우는 농업·농촌의 소득향상과 고용 확보에 6차산업화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.

【 농업 6차산업 관련 연가판매액 및 종사자 추이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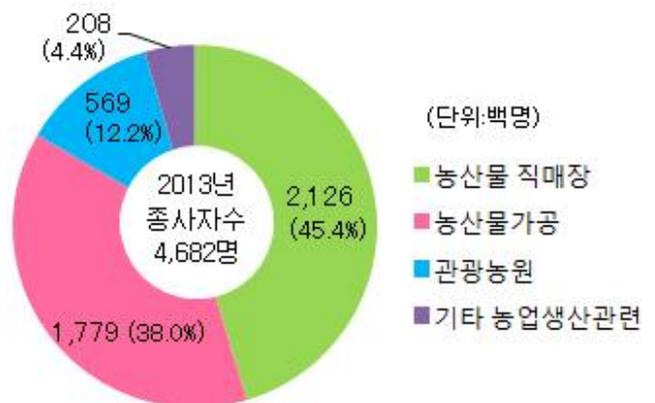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엔, 백명)

년도	연간판매액	농산물의가공	농산물직매장	종사자수
2010	1,655,236	778,332	817,586	3,995
2011	1,636,820	780,118	792,734	4,292
2012	1,745,125	823,730	844,818	4,512
2013	1,825,272	840,670	902,555	4,682

【 '13년도 6차산업 총 판매액 】



【 '13년도 6차산업 총 종사자수 】



○ 판매액 관련

- 총 판매액의 약 50%를 차지하는 직매장사업의 호조로 판매액은 전년대비 6.8% 증가한 9,026억엔임
- 농림성은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 특히 J나 제3섹터가 설립한 대규모 직매장에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음
- 판매액이 증가한 분야는 농가 레스토랑이나 농가민숙으로 ‘기타 농업생산관련 사업’이며, 판매액은 전년대비 14.6%증가한 443억엔임
- 지산지소의 장점을 활용하여 레스토랑 경영에 참입한 J가 늘어난 것과 높은 단가도 영향을 미쳤음

○ 종사자 관련

- 6차산업 종사자 중, 위원이나 가족을 제외한 고용자는 24만 4,500명으로 전년대비 5% 증가했으며 종사자 전체의 52%를 차지함
- 여성의 비율은 상시고용, 임시고용에 상관없이 60%를 넘어 6차산업이 농산촌의 여성들의 일자리로 정착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

(출처:일본농림수산성 6차 산업화 종합조사
일본농업신문 6.7)

○ 시사점

- 일본정부는 6차 산업화 관련 2015년 종합화사업계획 제1회 인증결과 41건을 사업인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그 결과 2013년의 동 사업의 판매액 및 고용에서 큰 진전을 보였음
- 특히, 지산지소 등 지역에 강한 농업을 육성코자 지방농협(JA) 및 농업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6차 산업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
- FTA 등 무역개방과 맞물려 농산물이 생산, 가공 및 판매 등을 일원화 하는 6차 산업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농가소득 및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